

# 권성동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여야정 사회적 대타협 필요”

“해묵은 개혁과제 해결하는 국회로”  
“민생 근본 대책은 경제 체질 개선”  
“입법-행정 건강한 긴장관계 유지”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누구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뤘었다”고 윤석열 정부 초기 개혁 의제를 띄웠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는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지만, 결국 근본 대책은 대한민국 경제 체질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주도 경제정책은 실패했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민간주도’”라며 “국회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힘쓰면서 경제 활력을 끌어

올리는 데 전념해야 하고, 국가재정 역시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시한폭탄이 됐다”며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여야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낮고 노동경직성은 높아 고용시장으로 진입하는 청년층이 고통받고 있어 노동유연화를 통해 고용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노동개혁 방향을,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예산 편중 조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 내용과 현장의 수요를 일치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교육개혁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개혁 추진 과정에 당이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정의 가교가 되겠다’ ‘직언과 쓴소리도 마다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여당은 협력관계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는 긴장관계”라며 “원내대표로서 공개적으로 직언을 할 적도 있고, 직접 대통령을 만나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조속하게 민생 대책을 논의하고, 시급한 현안 중 여야가 수월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겠다”며 “국민들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한편 최근 불거진 ‘언론관’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도 계획도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행적을 보시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여름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



하려고 ‘언론중재법’을 강행 시도했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이걸 막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에도 불구하고 당의 역할을 총집결해 싸웠다”며 “아마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

기’가 이번 정부에서 계속될까봐 걱정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호기자

## 우상호 “尹 사적채용, 공정·상식 무너져…국정조사 필요”

“조국 전 장관 딸 수사 당시尹의 공정은 무엇이었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사적채용’이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지인의 대통령실 근무 논란에 대해 “조국 전 장관 딸 문제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나”며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를 열고 “저는 이 강릉 우모씨 문제는 윤석열 공정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본다”며 “‘아빠찬스’가 수많은 청년들의 박탈감을 불러왔던 상황을 활용해서 대통령 된 분이다. 그런데 대통령 돼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그대로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우 비대위원장은 “강릉 우씨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의 지인이 아니었다면 청와대에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공채를 했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권성동 대표도 자신이 쫓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9급이고 임금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런 발상에 대해서도 매우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 아닌가. 급여의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다음 정치 행보에 매우 중요한 정치적 자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

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깊이 고려해봐야겠지만 마침 국민의힘에서 복송 어떤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지고 제안하지 않았나”라며 “그렇다면 그 국정조사와 이 사적채용, 비선논란 국정조사도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의 문제는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반성과 돌아보기 부족한 태도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붕괴되고 있다. 여러 문제점을 한 번 돌아보고 국정 기초를 바꿔야 할 때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욱더 윤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74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국민통합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여야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 “제안에 대해 동감이고, 여야 간 잘 협의해서 개헌특위 만들어져서 새로운 시대정신 구현할 헌법이 개정되길 소망한다”고 답했다.

최이슬기자

## 김진표 개헌론…권성동 “논의할 때 아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개헌논의할 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떠난 개헌론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집권 초기기 때문에”라고 선을 그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지금) 정부가 집권을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시기라고 본다”며 “그런데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쏠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연금·노동·교육개혁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러한 구성이 개헌의제에 밀려 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권 직무대행은 여야 합의가 매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여야 견해차가 워낙 큰 부분이 있어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며 “과거에도 19~20대 국회의장 직속 특위가 이뤄졌는데 합의를 못 했다. 민주당도 집권 5년 동안 개헌특위를, 21대 들어와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여야의 결단이 필요한데, 광범위한 주제로는 결단할 수 없다. 한 분야만 집중해서 결단해야지 기본권 모든 조항, 전문(前文)에서부터 끝까지 하겠다는 건 장만 펼쳐놓고 수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